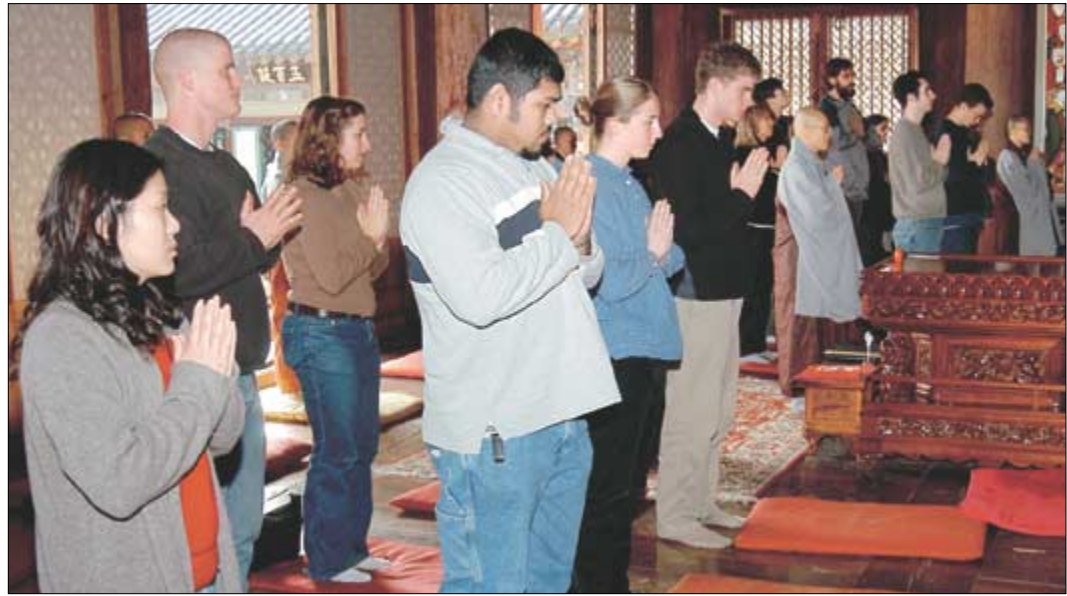


“한국의 사찰에서 경험한 차 맛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참선을 하며 평소 느낄 수 없었던 마음의 고요를 느꼈어요.”

18일 비구니 수행도량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에는 1600년 전통의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방한한 미국 조지아대 교수와 학생 17명의 진지함과 호기심으로 출만했다. 생소한 불교의 식을 아색해 하면서도 김탄과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 미 조지아대 학생·교수 17명 불교체험 운문사서 예불·108배·발우공양

## “참선하며 마음의 고요 느꼈어요”



◁미국 조지아대 교수와 학생 17명이 청도운문사대웅보전에서 법회를 보고있다.

특히 둘째 날 대중방에서 가진 발우공양에서 마지막에 김치로 씻은 송농물까지 말끔히 비워야 한다는 말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다가, 친환경적이고 한갓 미물까지도 배려하는 발우공양의 참 뜻을 전해 듣고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 대학교의 'Foundation Fellows' 라는 지도자양성 프로그램에 소속된 엘리트 학생들과 지도교수로, 연 2회 세계 각국을 방문해 그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교과과정으로 한국에 왔다.

지금까지는 유럽이나 동남아 등을 주로 방문했는데 반해 이번에는 이

례적으로 한국의 전통불교와 승가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한국의 사찰을 찾게 된 것이다.

이들은 17일부터 22일까지 불국사, 운문사, 송광사를 차례로 방문해

연등도 만들고, 예불, 참선, 108배, 발우공양 등 다양한 한국의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블레이크(조지아대 4년)씨는 “한국의 사찰이 너무 아름답고 참선이

나 발우공양 등의 훌륭한 불교 전통을 배울 수 있었다. 어떤 나라보다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체험행사에 학생들을 인솔하고 있는 이항순 교수(조지아대 비교문화학과)는 “기존 미국 내에 알려져 있는 티베트 등 동남아 불교와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한국불교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이 한국사찰의 아름다움과 참선 등의 수행에 매우 깊은 관심을 보여 한국 불교문화 탐방이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도=박원구 기자

## 스님 100여명 릴레이 단식

81세 예수스님 등 북한산·천성산 문제해결 촉구

지율스님의 부산시청 앞 단식농성이 14일로 끝난 가운데 서울 조계사 앞 천막 농성장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산 관동노선 백지화와 노무현 대통령의 친환경적 정책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은 15~16일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세영스님과 안동용수사 하유스님부터 시작됐다. 17~18일은 회통사 지황스님, 19일은 망월사 주지 원산스님, 20~23일은 불교환경연대 조직실장 법현스님이 뒤를 이었다.

24일에는 세수 81세인 회통사 회주 예수스님을 비롯, 회통사 주지 성견스님, 회통사 원산·향산·성파·법현·지황스님들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또 25~26일은 녹색연합 공동대표인 원택스님(전 조계종 총무부장)이 동참할 예정이다.

4월 1일부터는 용인사 부주지 보인스님과 동화사·운문사 대종스님들이 동참하며, 49일 동안 100여명의 스님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회향식은 5월 1일 개최한다.

남동우 기자

### 홍기삼총장 이사 선임 동국학원, 올예산 통과

동국학원(이사장 정대은)은 21일 회의실에서 제 191회 이사회를 열고 홍기삼 동국대 총장을 새 이사로 선임했다. 홍기삼 총장의 이사선임은 송석구 전 총장의 지분승계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2003년도 예산 3천95억 원을 통과시키고, 교원 36명을 승진 발령했으며, 경주 포항병원의료장비 리스 사용을 승인했다.

김원우기자

### 불교미디어 교육센터 건립기금 후원의 밤

불교아카데미(이사장 윤천수)는 불교미디어 교육센터 건립기금 마련과 사단법인 설립을 축하하는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4월 12일 오후 4시 30분 한강공원 여의도지구 여의나루 선착장 및 한강유람선(올림픽 1호)에서 열린다. 문의:02)745-7799

남동우 기자

## 서울 방배동에 주말농장

### 불교환경교육원

정토회 산하 불교환경교육원이 아스팔트와 빌딩숲에서 살아가고 있는 도시인들을 위해 친환경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개원한다.

서울 우면산 밑 방배동에 위치한 주말농장은 총 2000여평으로, 이

중 1000평은 주말농장으로 나머지 1000평은 자연학습장으로 꾸며진다. 정토회 신도의 무상기증으로 이뤄진 주말농장은 현재 30여 가족이 참여하고 있으며 30일 개원한다. 박석동 국장은 “자연체험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겠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02)587-8997

남동우 기자

## 서울시의회 불자의원회 창립

준비위원장 신영선 의원, 법회열어

서울특별시의회 불자의원회가 창립됐다.

서울시 불자의원회 창립준비위원회는 25일 오후 5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법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법어를 비롯해 초대 지도법사 경기 봉선사 주지 일면 스님의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불자의원회 창립준비위는 지난해 10월 발기인 모임을 갖고, 창립준비위원장에 신영선 의원(송파구)을 선출하는 등 창립을 위한 체제를 갖췄다. 불자의원회는 우선 매달 1회 정기법회를 병행하는 한편, 불자 의원 소속구의 전통사찰 순례법회를 펼칠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 돈황석실장경 일반 첫공개

뉴욕 소더비 경매장서 구입·소장

돈황 막고굴에서 발견된 불경 필사본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한국출판무역주식회사(02-735-5401)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20~24일 개최한 ‘책과 역사’전에 나온 돈황석실장경은 당 의정 스님이 번역한 <대광명회 승왕경>을 704년 법장 스님이 직접 필사(筆寫)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책 수집가인 이 모씨가 90년대 초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구입해 소장하고 있던 것.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대광명회 승왕경>은 한문본만 5종류가 전하고 범어본과 티베트본이 남아 있어 내용 연구는 충분한 상태지



만, 돈황 사본이 일반에 전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권형진 기자

## 달라이라마 4월 방한 무산

한국 정부 반대 부담 느껴, 8월 재추진

올해 4월로 예정된 달라이 라마 방한이 무산됐다. 다람살라 정부가 한국정부의 반대를 무릅쓰며까지 방한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원회(상임 집행위원장 박광서, 이하 방준위)는 방문을 다시 협의하기 위해 올 8월 다람살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방준위는 올해는 아니더라도 방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당시 비자

발급허용 여부에 대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득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방준위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도 후보 당시 ‘달라이 라마를 한국에 모시는 것이 옳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웅기 방준위 사무국장은 “이제는 조계종 차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고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 한국JTS, 북한동포 돕기 박차

내달 어린이용 분유·비닐·비료지원

외부 지원이 없을 경우 올해 내 400만명의 북한 어린이가 굶어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

운데 한국JTS(대표 유수가) 북한 동포 돕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JTS는 19일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양강도 삼지연군 어린이들을 위해 밀가루 100톤을 지원했다. 또 4월 2일 자유경제무역지대인 라선시에 어린이 영양식으로 분유 15톤을, 함경북도 경성지역에 비료와 비닐 약 1억 6천억원 가량을 지원한다.

한편 인도JTS는 28일 수자타 아카데미 기술학교 입학식을 개최한다.

남동우 기자

## 행원문화상 후보자

6월30일까지 접수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이 제12회 행원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수상 대상은 불전을 국역하거나 역경사업에 이바지 한 사람(역경상

과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시, 소설, 극문학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문학상),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사람(예술상) 등이다.

신청서 또는 추천서 1통과 이력서, 공적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02)586-6521

남동우 기자

# 해인사승가대학 (전통강원) 입방공고

한국불교의 요람이며, 전통승가교육의 산실인 **해인사 승가대학(강원)**에서는 **신입생 및 편입생** 방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치문반	00명
● 사집반	00명

구비서류	
①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1부
② 성적증명서(총무원 발급)	2부
③ 행자교육 수료증 사본(총무원 발급)	2부
④ 수계증명서 사본(총무원 발급)	2부
⑤ 주민등록초본	2부
⑥ 호적등본	2부
⑦ 건강진단서	2부
⑧ 은사스님 추천서	1부
⑨ 은사스님 법명, 속명(한글·한자), 당호, 주민등록번호, 승적번호	

준비물	
① 사 진(오조가사 복장 / 3×4cm)	8매
② 입학금	
③ 대가사(사미는 만의), 오조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도장(법명)	

- 전형방법**
- ◆ 서류제출일 : 불기 2547년 음력 3월 5일(양력 2003년 4월 6일) 일요일
  - ◆ 서류심사 및 면접일 : 불기 2547년 음력 3월 6일(양력 2003년 4월 7일) 월요일
  - ◆ 입 방 일 : 불기 2547년 음력 3월 7일(양력 2003년 4월 8일) 화요일

**문의처**  
055)931-1016, 1017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불기 2547년 3월 일

**해인사승가대학** 주지 수봉 세민 · 학장 종묵